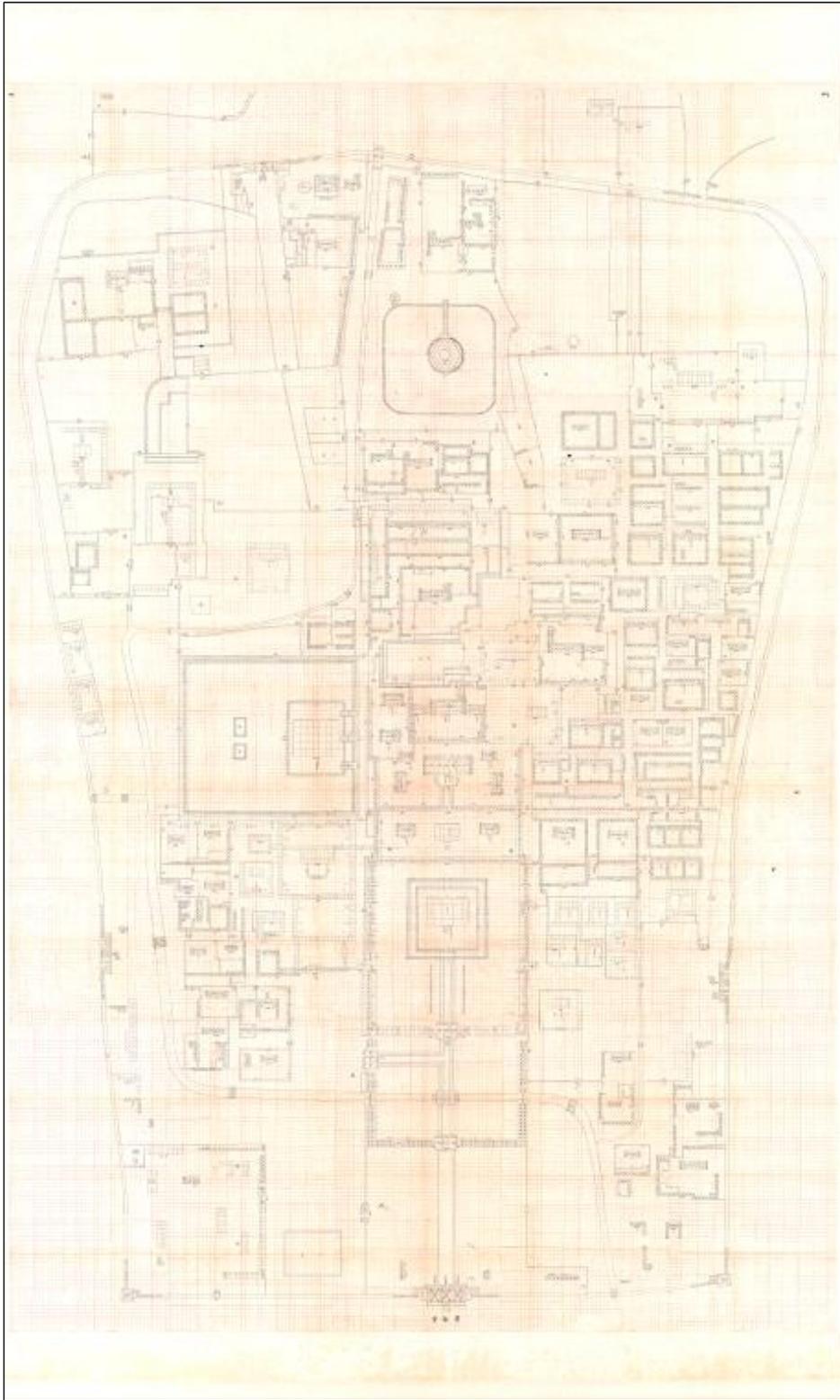


(붙임)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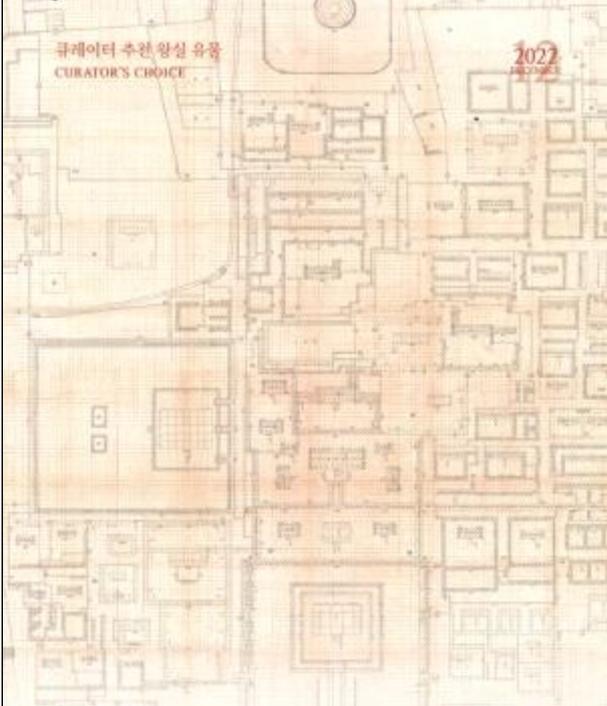


12월 큐레이터 추천 유물 <복궐도형>

안 내 흥 보 물

큐레이터 추천 창설 유물
CURATOR'S CHOICE

2022
12월 1주



눈금 위에 기록한 경복궁, 북궐도형 北闕圖形

북궐도형은 경복궁을 도면 형식으로 그린 배치도이다. 건축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당시 경복궁 전각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고종 대(재위 1863-1907년) 세계 지도는 경복궁의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의 궁궐실 2F

1907년경 | 용자대 배
제호 : 432.0cm x 71cm | 280Dlx x 1 폭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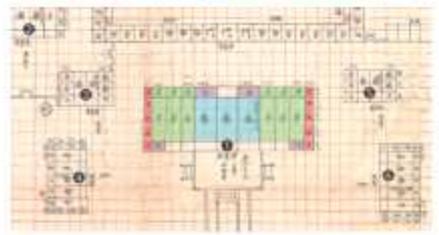
눈금 위에 기록한 경복궁, 북궐도형 北闕圖形
Map of the Northern Palace

조선시대 도성 내에는 위치에 따라 북궐(북궐경복궁), 서궐(서궐경복궁), 동궐(동궐경복궁), 남궐(남궐경복궁)이라는 궁궐이 자리잡았다. 그 중 북궐인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새 왕조 도읍을 선택한 후 바로 으뜸 궁궐이었다. 북궐도형은 경복궁을 도면 형식으로 그린 배치도다. 고종 대(재위 1863-1907년) 세계지도는 경복궁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시대 경복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지만, 이는 경복궁이 현재의 전경으로 삼지런 재질이 없고 지붕이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1910-1945)로 훼손되어 20여 년간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이후 중건이 논의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였고, 1963년 고종 2대 이후로 남아 문사가 시작되었다.

북궐도형은 그 후에 새로 지은 경복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붉은 선으로 30~40cm 간격의 눈금을 그린 후, 벽 선으로 각 전각의 이름과 위치, 건물 방향 등을 표시하였다. 평면도이기 때문에 인물의 처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방, 대궐(廳), 다채(臺), 활마루(廊), 등고(廊)와 같이 공간의 성격을 하고, 지붕의 특징과 단청이 크게 활용이 되어 있어 대략적인 실연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벽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건축 정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당시 궁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이 전각을 잃었다. 오늘날 궁궐이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노력이 모인 발굴·복원사업의 결과이다. 북궐도형은 조선 후기 경복궁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복궁 복원사업에 참고하고 있다.

The Map of the Northern Palace presents the layout of Gyeongbokgung Palace in the style of a blueprint. Providing architectural information in an objective manner, the map allow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ate of the buildings at Gyeongbokgung Palace in the time. It is an important resource that demonstrates the appearance of the palace after it was restored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r. 1863-1907).



- 궁내빈
- 종로대
- 복자당
- 공경전
- 선유당
- 연경전
- 방
- 정
- 누
- 전
- 문

본인 유물과 관련된 신청(내보)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부에서 접수하고 확인사항은 02-3125-1111
www.studies.citri.org/gyeongju.ac.kr

국립고궁박물관

12월 큐레이터 추천 유물 홍보물